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에 1000만원 기탁

지역을 대표하는 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고성욱)은 25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따뜻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성욱 공장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말했다.

한편 휴비스 전주공장은 2015년부터 매년 상반기에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하반기에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각각 1,000만원의 성금을 후원해 왔으며, 누적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재훈 기자



한국게임과학고, '전북 게임 잼' 서 우수상 수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 10여명이 참여한 '2022 전북 게임 잼(GAME JAM)'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교 3개 팀 대학교 10개 팀 일반인 3개 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해 22~23일 무박 2일간 스타트(START), 업(UP), 점프(JUMP)를 주제로 대회를 가졌다. 팀장인 이도현 학생은 "무박 2일 동안 밤을 새우며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몰입하다보니 힘든 것도 잊게 됐다. 앞으로 실력을 더 키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 대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5일 전주지방병원 남원지원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 및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전주지방병원남원지원 소속 직원들이 참석해 진행했다. 훈련 주요내용에는 △화재 발생 및 전파(119신고) △신속한 화재 초기진화 △화재시 인명대피훈련 △소화전,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면 재난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1회 장계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장계농협(조합장김정우)은 25일 계남면 게이트볼장 전용 구장에서 제11회 장계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장계농협(주최), 계남면 게이트볼 동호회(주관)로 열렸으며,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최한주·김남수 군의원, 이성재 장수군 게이트볼 연합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및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객용 조합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선호되는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문화재청장상'

고창문화모빌플랫폼, '이곳만은 꼭 지키자'... 6곳 수상작 선정

고창문화모빌플랫폼은 지난 22일 문화의집 서울 신림문화관에서 진행한 제20회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상식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역주민과 NGO 단체들이 직접 제안하여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캠페인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한 이번 제20회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사급하게 보전해야 할 구)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정부양쪽도정 동호공장을 비롯한 총 6곳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고창문화모빌플랫폼(대표 이금환)은 생태문화활동가들의 모임으로 2019년 2월 고창갯벌을 중심으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교육, 캠프, 자원조사, 패스티벌 등을 진행해 온 팀이다.

이금환 대표는 시상식에서 "고창문화민회를 통해 동호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도시시민추진단의 응원에 힘입어 영광을 안게 되었다"면서 "훼손 위기에 처한 고창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지키는 시민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또 동호초등학교 문화생태교실 운영과 함께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와 구)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을 대상으로 문화도시현장 시민추진단, 고창문화민회, 고창문화예술네트워크, 시민청의문화클럽 등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전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수상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설정환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장, 권예란 고창시장 부시장, 김일수 문화도시현장 시민추진단 천만석 바이오인섹트 팜 대표, 김진욱 청년문화공동체 '지디' 대표 등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황혜숙 부의장, '평화메달' 수상

정읍시의회 황혜숙 부의장은 25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보르도호텔에서 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제단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공동주최하는 UN의 날 기념식 및 평화메달 대상 수여식에서 평화메달을 수여 받았다.

평화메달은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과, 김법일 가나안농학교장, 박종화 국민일보 이사장, 이경숙 아노농재단 이사장, 이옥란 유엔평화마을재단 창설자, 임용근 전미국주상원 5선의원이 받았다.

특히, 평화메달은 비무장지대(DMZ)의 녹색 철조망과 6·25 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이다.

이어 황혜숙 부의장은 "70여년 전,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주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며 숭고한 사령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6개 메달 획득

익산시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모두 2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7개, 동메달 12개 등을 획득했다.

사이클 종목 국가대표 이도현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도로, 개인도로 독주, 혼성도로 등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론볼 서중철, 불림 강호, 양궁 유두환, 육상 최영순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며 선전했다.

특히 육상종목에서만 금 1, 은 4, 동 4개를 획득하며 효자 종목으로 익산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게이트볼, 론볼 스마, 양궁, 역도, 펜싱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에인체육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장애인 체육의 다양한 종목 확대와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품 장애인 체육복지도시인 익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대 의대 26회 졸업 동기회, 모교·후배에 2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제26회 졸업 동기회(회장 정치량·삼성서울병원)가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써달라며 2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131명의 졸업 동기들은 지난 9월 24일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소식을 공유하고,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일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이들은 십시일반 기금 조성에 나섰고, 2천만 원의 기금을 만들어 의대 발전과 후배 장학금 등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이에 전북대는 의대 26회 졸업생 중 전북대에 재직하고 있는 이주형(예방의학), 오영민(신경외과) 교수 등을 대표로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이주형 교수는 "졸업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에 지난 2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의술을 펼쳐왔던 동기들이 마음



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쓰여, 의대가 더욱 발전하는 데 중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대한콘트롤스, 남원시에 사랑의 마스크 전달

남원시는 대한콘트롤스 대표 고윤종에서 25일 KF94 마스크 4만5천장(9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기부에는 대형뿐 아니라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중형 마스크도 포함되고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가 더욱 눈길을 끌었으며, 기부된 마스크는 지역이동센터 및 보건센터,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 이웃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고윤종 대표는 "코로나19 기세가 줄어들었으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마스크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방이자 주민복지과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마스크는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한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맑은군산추진단 발대식... 제1차 회의 개최

군산시가 지난 24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 '맑은군산추진단'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청렴시책 발굴에 나선다. 맑은군산추진단은 민선 8기 김영준 군산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한 반성과 대책으로 민간을 참여시켜 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했다.

맑은군산추진단 인적 구성 중 내부위원 6명은 간부공무원 및 MZ세대 공무원, 노조대표 등이며 외부위원 6명은 시민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언론인 등으로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여해 "최근의 저조한 청렴도 평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맑은군산추진단을 통해 제안된 사항은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산=김갑근 기자



전주덕일중, 1학생 1아이패드 보급

전주덕일중학교는 20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서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한 수업혁신을 위해 학생 1인당 1개의 아이패드(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덕일중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 △오프리미 수업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 혁신 △배움과 성장의 날(매주 수요일)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한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이패드 공동작업기능을 활용한 토론 수업, 기기를 통한 과제 배부 및 수집 정보 수집 및 이용 역량 강화, 스케치 및 드로잉을 통한 다양한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읍=성기두 기자



하인선 남원 죽항동 동장, 가가호호 안부 살피

남원시 죽항동 하인선 동장은 지난 7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80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뚝뚝을 해오고 있다.

또한 방문에서는 건강상담을 병행하였으며, 어려움이 발견된 10여세대에 대해서는 공적서비스 및 민간후원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12일에는 남원사회복지관 연계에 라면, 햄, 냉동식품 등 꾸러미를 25가정에 방문시 전달하였으며, 식사준비가 어려운 장애인 부부가 구 및 독거 어르신 3가구에 매일 드실 수 있도록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이 심한 한부모가정에 방문하여 공과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공과금 해결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25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유00 어르신에게 대나무를 봉사(단장 정태식) 15명과 1톤 가량의 쓰레기를 청소했다.

한편 하인선 죽항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앞으로도 동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말뚝이 되어주는 등 지속적인 보살핌을 이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